

안 그래픽스 인쇄, 싸인, 디자인 안희탁 스테파노 404-717-9897	이강연 CPA 미카엘 770-279-2770 info@mklcpa.com	리 장례식장 Lee's Funeral Home & Crematory 이국자 770-401-7616 귀 넷 770-622-2525	PIWC Group Agency 자동차, 집, 사업체, 중업원 상해 보험 장인욱 베드로 404-644-8658	SB 건축&철공 House 내부수리 일체 철구조물 수리 제작 방성호 크레센시오 678-599-0200	오즈 냉 동 에어콘, 히팅, 냉동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	---	--	--	---	--



로렌 배 보험
(모니카)
자동차/집/사업체/건강
404-282-1654
3775 Venture Dr. #M202
Duluth, GA 30096

미소 치과
남상우 시몬
남수진 세실리아
770-814-7533
4195 Pleasant Hill Rd #200,
Duluth, GA 30096

SMILE 1 DENTAL GROUP
스마일원치과
김세희 소화테라사
김상윤 요셉
678-835-9550
1120 Peachtree Industrial Blvd #203, Suwanee, GA 30024

AAA 이창호 보험
Insurance Checklist
메디케어
신청, 변경 도와드립니다.
이창호 바오로 678-910-0884
cclee@acg.aaa.com
2628 Pleasant Hill Road #700 Duluth, GA 30096

ALFONE LIFE
FINANCIAL & INSURANCE SERVICE
메디케어 / IRA / 연금
생명보험 / 오바마케어
한재만 그레고리오
404-272-6157

Suwanee ORTHODONTICS
Elevate Your Smile
스와니 교정 치과
김범수 니콜라오
678-482-9434
0% Interest | 주말 예약 가능 | 카톡상담(Suwaneeortho)

더조은 척추
확실한 카이로프랙틱
운동상해(골프, 테니스 전문) 및 교통사고
박찬규 레오
678-473-0552
6630 McGinnis Ferry Road Suite B,
Johns Creek, GA 30097

MASTER REALTY
김선민 요안나 부동산
404-285-6472
smkim@master-realty.com

Peachtree Physical Therapy
피치트리 물리치료 클리닉
470-238-3683
1300 Peachtree Industrial Blvd #4108
Suwanee, GA 30024

Better Homes and Gardens REAL ESTATE
김옥경 에밀리 부동산
M. 770-912-8282
O. 404-843-2500

KW KELLERWILLIAMS
오현정 유리안나 부동산
Juliana OH
678-908-4945

만 천 흥
명품 중식 레스토랑
770-454-5640
5953 Buford Hwy NE #105
Doraville, GA 30340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쉽니다.

SINCE 1999 VINEYARD REALTY
시니어 주택전문 (Seniors Real Estate Specialist)
사업용 건물 · 토지
조셉 김 678-361-6230

Pinehill Realty
조앤리 아네스 부동산
678-770-1136
realtorjoanne@gmail.com

정승욱 미카엘 변호사
Law Office Of Michael S. Chung, LLC
이민 · 입양 · 클로징 · 상법 · 유언
2174 pleasant hill RD #204C Duluth GA 30096

오약국
모든보험 수령 / 저렴한 약값
470-223-4775
10820 Abbotts Bridge Rd. #240
Johns Creek, GA 30097

So Good (Bridal&Beauty)
678-474-4979
348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sogoodbridal
www.sogoodbb.com

이종원 미카엘 변호사
무료상담 678-622-8829
jwlee@jwleelaw.com

TOP 조경
Lawn Maintenance
잔디관리 전문(가정, 상업용)
2547 Old Rockbridge Road, Norcross, GA 30071

GIFTS GOLD · CROSS · REPAIRS
· 십자가, 성상 · 성화, 목주, 책 · 신발수선
· 금, 은, 주문제작 · 타-셔츠 프린팅
성물점 770-614-1738
3255 Lawrenceville-Suwanee Rd. #L Suwanee, GA 30024

RIVERBEND Tire & Auto Service, Inc.
SONAMOO 소나무 Auto Repair
리버밴드 오토
변대건 안드레아
404-663-7984
Office 770-623-5940
3322 Peachtree Industrial Blvd, Duluth, GA 30096

朝鮮日報 에틀렌타
조선일보 마케팅 사원 모집-0명
자격 요건에 따라 H1-B, 영주권 스폰서 가능
이력서 보낼 곳: kookjinlee@yahoo.com
문의: 678-468-8565

순교자 주보

에틀렌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2023년 1월 15일
NO.2182
SCAN ME

주임신부 구동욱 미카엘 micku@kakao.com | 보좌신부 김성현 라파엘 raphaelkimsj@gmail.com
사목회장 남현석 요셉 Email: josephnam2011@gmail.com Tel: 770.827.9987
전화 770.455.1380 | 팩스 770.455.4262 | Email kmccga.office@gmail.com
주소 6003 Buford Hwy. NE., Doraville, GA 30340 | URL http://www.kmccga.com



<The Baptism of Christ, 그리스도의 세례>, 프란체스코 트레비사니, 1723, 유화, 영국 리즈 미술관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요한 1,29-30)

연중 제2주일

성가 입당: 22 봉헌: 340/216 성체: 161/162 파견: 31

제1독서 이사야서 49,3.5-6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화답송 주님, 보소서, 당 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 이 다.

제2독서 코린토 1서 1,1-3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복음 요한 1,29-34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청년미사(토) 5:30pm
아침미사 8:30am
교중미사 10:30am
영어미사 12:15pm

평일미사
화요일, 금요일 12:00pm
수요일, 목요일 7:30pm

월간미사
성모신심미사 첫째주 토요일 12:00pm

◆ 고해 성사: 미사 시작 30분 전
◆ 성시간: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사무실: 일요일 7:00am-3:00pm
월요일 휴무
화-토 10:00am-6:00pm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요한 1,29-34)

그때에 29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① 이시다.

30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31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② 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32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③ 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33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④ 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34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그 말에서 우리는 한줄기 밝은 빛을 봅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 빛을 비추듯 성경 속의 이 장면에서 우리는 희망을 느낍니다. 절망 속에서 살던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입에서 한번 내뱉어진 말이나 내 손으로 행해진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죄인을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니 이 말이 얼마나 기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인한 비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인간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어린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인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끝없는 우주 속에서 먼저 하나에 불과한 제 자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놓은 적이 있었던가 돌아보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은 참으로 쉽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이 옳다는 자기 합리화로 감정이 내키는대로 행동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남을 위하는 행동은 아무리 수련을 한다고 해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성적인 마음으로 무장하고 교리대로, 가르침대로 어느정도 행할 수는 있지만 정말 내 자신을 오히려 희생해 가면서 남을 위한다는 것은 독실한 신앙인이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침에 결심을 하더라도 하루가 마감할 때 쯤이면 또 내가 죄를 반복했구나 느끼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발의 먼지만큼 만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다행인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둡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해서 우리 위에도 성령이 머무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성 찰 |

세상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말씀 빈칸 채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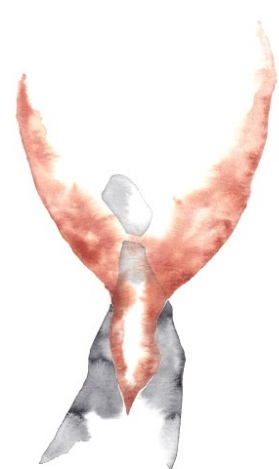
- ① 어린양 ② 물 ③ 성령 ④ 성령

뜨겁게 < 요한 1,29-34 > 배영길 베드로 신부

그 사랑받아
뜨겁게 살립니다.

그 불속에서
모두를 태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렵니다.

남께서 남기신
그 사랑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십계명에 관한 교리

한국어



ENGLISH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6월 13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일 일반알현을 통해 십계명에 관한 교리 교육을 시작했다. “하느님의 열 가지 말씀들”에 담긴 뜻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지향하며 중 주요 부분을 요약해 실는다.

서론 : 완전한 삶에 대한 열망

십계명은 ‘명령’이 아닌 ‘말씀’, 하느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주제로 교리 교육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느님의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탈출기 20장의 시작이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1절)라는 것을 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이 계명들을 선포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전통은 십계명을 항상 “열 가지 말씀들(le dieci Parole)”이라고 부릅니다. 왜 성경 저자는 이 대목에서 “열 가지 말씀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왜 “십계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명령과 말씀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명령은 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적) 통보입니다. 반면, 말씀은 대화처럼 관계의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당신 아드님께서는 육화되신 말씀입니다. 사랑은 말로 길러집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두 사람은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마음에 말하면 우리의 고독은 끝납니다. 계명들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열 가지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대화는 진리의 전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봄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더운 봄이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는 진실이지만 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말한다면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명들은 대화입니다. “대화는 말하는 기쁨과 말을 매개로 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전달되는 구체적인 선을 통해 실현됩니다. 이 선은 사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 안에서 서로를 주고받는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142항 참조)

십계명은 자유를 향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이 여정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율법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자녀의 마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율법을 앞서며, 율법에 의미를 부여한다.

열 가지 말씀들(십계명)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탈출 20,2). 이러한 시작은 뒤에 이어지는 구체적인 십계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왜 당신 자신과 해방에 대해 이러한 선포를



프란치스코 교황 (Vatican Media)

하셨습니까? 흥해를 건넌 다음에서야 시나이 산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먼저 구원하시고, 그런 다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곧, 십계명은 하느님의 관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주시고, 그런 뒤에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선언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소속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외부인이 아니라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이것이 십계명 전체를 밝혀 주며, 그리스도인 행동의 비밀을 드러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요한 15,9)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보다 관대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응답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이기심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느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성령의 방문을 받은 마음의 특징입니다. 하느님께 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탈출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역에 짓눌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자 고역에 짓눌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가 하느님께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계약을 기억하셨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펴보고 그 처지를 알게 되셨다”(탈출 2,23-25). 하느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열 가지 말씀들, 곧 십계명의 서두에 명시된 하느님의 해방시키시는 행동은 백성들의 그 신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되지 못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저를 가엾게 여기소서. 주님 저에게 기쁨을 조금 주십시오.” 이것은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이기심과 죄와 노예의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청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중요합니다. 이 외침은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을 끊을 수 있고 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에게 무한히 주신 당신께 기쁨으로 순명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하느님께서 항상 축복받으소서.



성모 신심 미사

1월 7일 토요일 낮 12시 미사는 **성모 신심 미사**로 봉헌 되었습니다.



구역장 회의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구역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꾸리아 월례 모임

주일 낮 12시 30분에 소성당에서 **꾸리아 월례모임**이 있었습니다.



예비자 교리반

주일 오전 9시부터 소성당에서 **예비자 교리반 수업**이 있었습니다.



알파레타-1 구역 점심 판매

주일 미사 후 **알파레타-1 구역**에서 **점심 판매**가 있었습니다.



원예반 모임

주일 낮 12시에 **원예반 모임**이 있었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요한 1,36)



천주의 어린 양(Agnus Dei), 프란치스코 데 수르바란, 마드리드 프라도 국립 박물관, 스페인

파스카 어린양

오늘 복음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한 ‘하느님의 어린양’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이 증언은 예수님이 ‘파스카 어린양’이시며 ‘하느님의 종’이시라는 사실을 표명해 주고 있다.

파스카란 ‘통과하다’, ‘거르고 지나가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출애굽 사건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잡아 두려는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모세는 열 가지 재앙을 보여 주었는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모든 만물을 죽이는 재앙이었다.

이때 유대인들은 아훼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어린양의 피를 문상인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집트의 만물을 쳐죽이는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 극적인 탈출을 할 수 있었다. ‘파스카’라는 말은 하느님의 천사가 문설주에 발린 어린양의 피를 보고 ‘거르고 지나갔다’(passover)는 데서 유래한다. 이후 흠이 없는 어린 양(1년생)을 제물로 잡아 ‘파스카 축제’를 지내면서 그들 민족을 형성시켰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해 왔다.

“하느님의 어린양(Agnus Dei),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하느님의 어린양은 예수께서 새 계약의 어린양이심을 상기시켜준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양의 죽음과도 같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파스카는 부활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신약시대에 사도들은 어린양의 표상을 이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했다. 교회에서는 6세기 이후 이 구절을 미사 전례 중에 낭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자로서의 어린양임을 고백하고 있다.

새해엔 이런 사람이

이해인 수녀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써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에 새해라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 주신 주님,
이 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로 보며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로발렌틴즈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1월 8일 (연중 제1주일)

교중미사(10:30am)...	313명	주일헌금	\$ 4,783.00
아침미사(08:30am)...	95명	교무금	\$ 8,635.00
영어미사(12:15pm)...	56명	감사헌금	\$ 500.00
청년미사(05:30pm)...	67명	성물방	\$ 180.00
미사참례 총	531명		

교무금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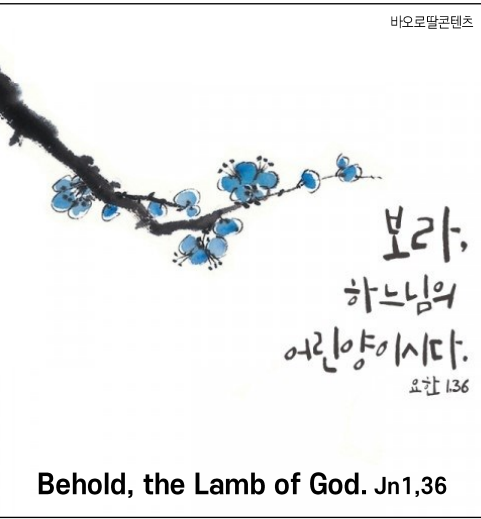
김루시아 (1)	박재영 (12)	송용덕 (1)	이남순 (1~2)	최영갑 (1)
김상순 (1)	박재현 (1)	신옥기 (1)	이동춘 (1)	최인영 (1)
김영환 (1)	박평하 (1)	심충섭 (1~2)	이복화 (1)	최지남 (1~12)
김원봉 (12)	박해영 (1)	안현웅 (11~12)	이창호 (1)	최철민 (1)
김일환 (1)	배광욱 (1)	왕정자 (7~10)	이홍규 (1~2)	최준명 (1)
김재경 (1)	배정희 (1)	원동훈 (1)	전근섭 (1)	한성인 (1)
김홍자 (11~12)	서동민 (1)	윤기태 (1)	정예근 (1)	홍동욱 (1~12)
나영숙 (1)	서상희 (1)	윤성진 (1)	정창래 (1)	황등현 (1~3)
남현석 (1)	서영규 (1~2)	윤춘호 (1)	조소춘 (1)	
박두환 (1)	석스테판 (1)	이강연 (1)	최동순 (1~2)	

교무금/ AA 기금 약정/ 봉헌 안내

- 2022-2023 회계연도 교무금 약정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을 내실 때 **월 표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AA기금 약정도 계속 성당 사무실에서 받고 있으오니 약정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봉헌시 이름과 신자 번호, 봉헌 내역 등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생미사, 연령미사 봉헌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22/2023 교무금 월 약정자

강규상	남상우	송용덕	이승규	정창래
강용조	문명재	심충섭	이주미	조보현
곽흥배	박근우	심호용	이종길	조성환
김남우	박두환	안승범	이창호	지승남
김루시아	박종홍	양경직	이홍규	차영수
김미자	배정희	양재준	이홍철	최동순
김영철	백현숙	오상수	이현두	최문영
김일환	손철영	유영한	이현옥	최지남
김태규	서상희	유중현	장민재	한성인
김향순	서재욱	이동춘	전근섭	허민환
김호수	서혁규	이복화	전 홍	홍동욱
김홍섭	석대진	이봉조	정용선	홍영기
김 훈	설재규	이수진	정지윤	



본당 방역지침 변경 안내

- 마스크 착용은 자율
- 미사중 응송 가능
- 고해서는 사제 사무실에서
- 성수는 운용하지 않으며, 비치된 Sanitizer는 그대로 운용
- 미사 관면이 가능한 경우(애틀랜타 교구형 지침)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 코비드 양성반응자와 접촉하였거나, 증상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 CDC가 분류한 고위험군에 포함된 경우(노약자)

Amazon 스마일 펀드레이징 캠페인

- 청소년기금마련을 위한 아마존 스마일 프로 그램은 구입금액의 0.5%를 본당으로 보내어 션이 됩니다.
- 이용방법: smile.amazon.com 에서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2023년 AA 기금 납부 현황

2023년 1월 8일 (연중 제1주일)

교구 할당액	\$ 44,200.00
누계 납부액	\$ 3,390.00
달성률	7.7 %
금주 납부액	\$ 800.00

2023년 AA 기금
Announcement Weekend: 2월 11-12일
Commitment Weekend: 2월 18-19일

2023 AA 기금 납부자

김상순	박정애	원동훈	이종길	한성인
김원봉	박해영	윤성진	전근섭	한재만
김일환	배정희	이동춘	정민주	황등현
박근우	손철영	이상호	최철민	

금주 후원금

감사헌금	김인아
------	-----

구역미사

1/13 (금) 7:30 pm	Tucker 구역 김중환 빠찌피꼬 770-356-7911
1/20 (금) 7:00 pm	Alpharetta 2 구역 유성열 다미아노 678-687-2064
1/27 (금) 3:00 pm	South Atlanta 구역 김일환 베드로 770-315-5504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1/14 (토) 오후 5:30	강성남	서현규 강다연	소현서 도렉스
1/15 (일) 오전 8:30	이진화	김대용 김월수	김매튜 김서중
1/15 (일) 오전 10:30	박미혜	이국진 이정란	장재은 양大海 김소현
1/15 (일) 오후 12:15	Sara	장유빈 Chris Kim	전지우 이주현
1/21 (토) 오후 5:30	고승찬	김경민 신경아	안상우 이하윤 안상준
1/22 (일) 오전 8:30	서정원	윤춘호 윤영미	김태훈 박시은
1/22 (일) 오전 10:30	이경환	고근배 고숙영	최미나 양다원 도이삭
1/22 (일) 오후 12:15	Sara	오준현 Lydia	양다원 남소호 김서윤

본당 캘린더

1월 13일~15일	고등부 피정(주일학교)
1월 22일	설날합동연미사/설날잔치 주일학교 2학기 개강
1월 29일	초 축복 예식 (선교분과)

설 합동 위령 미사 및 설 상차림 안내

- 일시: 1월 21일 (토) 5:30pm 특전 미사
1월 22일 (일) 8:30/10:30am 미사
- ▶ 미사 시작 15분전에 상차림 예절이 있습니다.
▶ 1월 22일(일) 설날 영어 미사가 있습니다.

2차 헌금

- ARCHDIOCESAN HISPANIC MINISTRIES
일시: 1월 14일(토)/ 15일(일)

망치회 기금 마련 노트 판매

- 일시: 1월 15일(일) 주일 친교실
- 문의: 원동훈 770-910-5656

빛과 소금 정기모임

- 일시: 1월 15일(일) 12시 15분
- 장소: 성당 1층 유아방 옆방
- 문의: 최철민 베드로 kingsaram99@yahoo.com

설날 행사 1월22일(일)

- 점심: 성모회에서 떡국 제공
- ▶ 신자분들은 가급적 한복 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초 축복

1월 29일 (일) 10: 30am 미사 시작 15분전까지 가정초 축복을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초를 제대 앞으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 모집

주일학교 개강일: 1월22일
문의: 김시윤 루피나 kmccga.youngadult@gmail.com

청소년 기금 마련 잡곡판매

성모회 판매: 참기름,다시마,도토리국수,취나물 등등
일시: 매주 교중 미사후 친교실

2023 매일 미사 책 신청

- 신청 장소: 주일 친교실 | 문의: 770-455-1380
- 연간 구독료: \$50

예수회 후원금 Tax Report 발송 안내

2022년 예수회 후원금 Tax Report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주소와 이름을 Text로 보내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서정원 678-779-4865

본당 알림

- 성가대원 (주일 8시30분 미사) 및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진용 (678-478-7830)
- 장례 미사 및 연도 요청은 연령회에 연락바랍니다. 문의: 이수진 브렌다노(404-933-8233)
- 혼인 성사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알루미늄 캔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의: 박정미 로시타 (901-832-3306)
- 보관 중인 연도책은 사무실로 반납 바랍니다.
- 2022년 주보 광고비와 2023년도 카렌다 광고비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성물방 시간 : 일요일 9:30am~1:00pm (예약 주문/상당가능)
- 주보 관련 문의 : kmccga.bulletin@gmail.com

봉사자들을 위한 성서 영성 독서회

- 내용: 마르티니 추기경님의 '모세의 생애'
- 기간: 11월 10일 부터
- 일시: 수요일 오전 10:30-12:00, 소성당
목요일 오전 10:30-12:00 (신설반)
목요일 오후 6:00 - 7:00, 대성전
- 문의: 이혁륜 404-518-7373

말씀으로 기도하기 101

- 주최: ATLANTA KCLC
- 기간: 2월 4일-3월 25일(8주)
- 시간: 매주 토요일 9:30-11:00am
- 장소: 유아방
- 문의: 박철민 리나 404-519-4604
이경숙 글라라 404-514-6095

페루 '간또그란데' 단기 선교단 모집

일시: 5월24일 (수) ~ 6월6일 (화)

신청 인원 및 자격: 대학생~65세 (12명)

봉사내용: 노동, 율동, 찬미, 태권도등

문의: 김용준 로마노 770-895-1000

- 봉사자는 10주 동안 토요일 기도 및 준비 모임 참석
- 후원 물품 및 후원금을 주일 친교실에서 3월부터 접수합니다.
-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 중에 계신 분들

김미영(인덱마리아)	이기산(스테파노)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이금숙(세실리아)
류영래(세실리아)	이수진(브렌다노)
민병숙(라파엘라)	조갑희(마리아)
박덕자(빅토리아)	조경희(글라라)
박정자(테레사)	채종현(아오스당)
박평하(요한)	최대일(프레드릭)
유옥희(모니카)	최순례(아나타시아)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22년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견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성당 학교 소식

- 주일 학교 안내
시간: 매주 일요일, 10:30am~12:00pm
문의: 김시윤 루피나 kmccga.youngadult@gmail.com
- 토요 대건 한국학교
시간: 매주 토요일, 9:15am~12:30pm
문의: 노시현 네오미시아 678-677-3515

전례곡들이 바뀝니다

- 자비송: 315
- 대영광송: 316
- 알렐루야: 364
- 거룩하시도다: 317
- 신앙의 신비여: 372
- 아멘: 380
- 주님의 기도: 318
- 주님께나라와 권능과: 390
- 하느님에 어린양: 319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청년회 'IT HELP DESK'

평소 궁금하셨던 핸드폰 설정 이메일 컴퓨터 세팅을 청년회에서 도와 드립니다!

1월 29일 교중미사 후 친교실에서 1시까지

제3차 미 동남부 관상기도를 통한 성체신심 세미나

일시: 2023년 2월 6일(월) 오후 3시 30분 ~2월 9일(목) 오후 3시

장소: Ignatius Retreat Center

지도: 지용식 마태오, 최정진 레오 신부

참가비: \$450

신청마감: 2023년 1월 15일 (선착순 40명)

연락처: 최미영 헬레나 404 918 0424

이스라엘 생지순례모집

출발: 2023년 8월 30일 (10박11일)

지도신부: 김성현 라파엘 신부

모집인원: 선착순 30명

접수마감: 30명 인원 충당시 까지

순례비용: 순례비, 항공료 포함 \$3500.00

문의: 김용준 로마노 770-895-1000
mymoohan@gmail.com